경북도민일보

2006년 12월 15일 006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박차'

대구 유치委, 60만명 경기참관 서명운동 전개

대륙별 교차 개최 원칙…브리즈번과 2파전 될 듯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유종하)가 60만명 경기참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는 15일 대구엑스코에서 60만명 경기참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내 중심가와 동대구역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치위는 대회 9일동안 하루 6만6000명(대구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씩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6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운동 발대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역 인사 35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유치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치위는 최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사무국에 접수된 2011년 및 2013년 대회의 유치신청 도시가 당초 예상한 8개 도시보다 적은 5개 도시로 압축된 데 고무적이다.

접수 마감 결과, 유치 신청 도시는 아시아쪽의 대구와 호주 브리즈번을 비롯해 유럽쪽의 러시아 모스크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스웨덴의 예테보리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내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2011년 및 2013년 대회 개최지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륙별 교차 개최의 원칙에 따라 2011년 대회는 대구와 호주 브리즈번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국회가 최근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해 유치위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됐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유치 심사 때 정부·국회의 유치 의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조건들이 좋은 편"이라면서 "대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는 최종 개최지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배기자 jhb@